화엄늪…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천성산. 경남 양산 가지산 도립공원의 일부를 이루는 곳으로 비구니 수행 도량인 내원사를 그 품에 안고 있다. 최근 경부고속철 관통에 따른 생태계와 수행 환경 파괴에 직면하여 불자들과 환경단체의 애를 태우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태백의 구봉산에서 부산 다대포까지 내려오며 낙동강과 함께 영남의 생태 축을 이루는 낙동정맥의 지맥에 걸터앉아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가운데 두고 통도사의 취서산과 마주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데, 취서산을 통도사 창건주인 자장율사의 산이라고 하면, 천성산은 내원사 창건주인 원효대사의 산이다.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2) 천성산 내원사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천성산 내원사' 이호신 作, 수묵 담채(90×60cm), 2002년.

습지에 자생식물 695종·곤충 38종 서식

성불암 계곡 참나무군락 - 원시림 방불

천성산 내원사 계곡의 들머리는 용연천으로 시작된다. 물을 보면 그 숲을 안다고 했다. 용연천에 물이끼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천성산의 숲 생태계가 아직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용연천을 따라 매표소 삼거리에 이르면 오른쪽으로는 내원사로 가는 병풍골이 나 있고, 왼쪽으로는 성불암으로 가는 성불골이 나 있다. 병풍골은 별명에 걸맞게 아기자기한 기암절벽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있다. 길을 가다 보면 수령 1백년 이상의 노송들이 곳곳에 눈맛 좋게 남아 있다. 햇볕을 더 많이 받으려고 계곡 쪽으로 뚝뚝 뻗은 가지들이 장정들의 팔뚝처럼 아직은 튼실해 보인다. 그러나 곳곳에 대형 쓰레기장을 두고 쓰레기들을 수시로 태우고 있어서 적이 염려스럽다.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연과 다이옥신은 이곳의 생태계를 알게 모르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내원사 개울 숲에서 관찰된 대벌레는 비교적 생태계가 건강한 지역에 나타나는 곤충으로, 천성산의 지표종이 될 만하다. 몸과 다리가 가늘고 길어서 얼핏보면 사마귀나 게아재비를 연상케 한다.

내원사는 큰법당에 걸린 '선나원(禪那院)' 현액이 말해주듯 지금까지도 선찰의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안거철이면 70여 분의 비구니들이 마음공부를 하러 모여든다.

선방 옆에 얼룩식나무가 튼실하게 자라고 있다. 난대수종인 얼룩식나무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양산의 해양성 기후가 그만큼 따뜻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내원사를 돌아 정상으로 오르는 숲길은 그윽하고 깊다. 소나무와 참나무류를 중심으로한 전형적인 혼효림이다. 층위구조도 비교적 잘 짜여 있다. 그러나, 멋지 좋은 노거수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은 한때 산불이 천성산을 모질게도 휩쓸고 갔음을 말해준다.

봄철 이 숲길에는 하얀 팥배나무꽃이 지천으로 핀다. 팥배나무는 영어로 'Korean Mountain Ash'라고 한다.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어느 산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이다.

여름이면 전국 어딜 가나 참꽃이 만발이



◇원효스님이 1천 대중들에게 화엄경을 설했다는 화엄늪은 생태계의 보고다.

지만, 천성산엔 참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원효의 제자가 탁발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참 넝쿨에 걸려 그만 넘어졌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원효가 도술을 부려 천성산의 참을 모두 거두어버렸다고 한다.

고요 속에서 부전나비 한쌍이 짝짓기를 하고 있다. 암수 모두 죽은 듯이 미동도 없다. 바람도 살금살금 지나가고, 풀잎도 미동을 멈추고, 새들도 날개깃을 접었다. 온 우주가 정중동(靜中動)이다. 이렇듯 모든 생명은 정중동의 숭고한 적멸(寂滅) 가운데서 탄생되었을 것이다. 적멸을 거부한 인간시대에서 새롭게 만나는 극락이다.

정상으로 오르다보면 양산시가 천성산을 개발할 목적으로 낸 물법 임도를 느닷없이 만나게 된다. 규정보다 무려 2배나 되는 길을 내놓고 자갈을 깔고 정원석으로 조경까지 해 놓았다. 이 불법 임도 때문에 내원사 스님들은 여러날 밤잠 못 들었다 한다. 얼핏 생각하면 자연파괴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무지에서 오는 욕심과 자연에 대한 오만, 그리고 향락 본성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이다.

8부 능선께 이르면 시야가 넓게 트이면서 공활한 초지가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원효가 1천명의 대중을 모아놓고 금북[金鼓]를 치며 화엄경을 설했다는 전설의 화엄벌이다.

9만여 평이나 되는 초지의 절반 가량은

고속철 관통땐 수맥변화, 늪지 파괴 불보듯

국내에서 몇 군데 밖에 없는 희귀한 산지습지로 이루어져 있다. 늪의 수원은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용천수이다. 식물이 죽은 뒤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쌓인 이탄층(泥炭層)에 용천수가 스며들어 마치 물먹은 스펀지를 연상케 해준다.

뭇 생명의 아지트인 이 습지를 최초로 발견한 정우규 박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자생식물 695종과 곤충 38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화엄늪은 그대로가 살아있는 작은 자연사 박물관이다.

늪의 식생을 보면, 억새와 진퓰이새 군락 사이에 잠자리난초, 미꾸리낚시, 동의나물, 물매화, 수정난풀, 물봉선, 송이풀, 물이계, 물이끼, 은난초, 꽃창포 등 습지성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끈끈이주걱과 이삭귀개를 중심으로 한 식충식물이다. 글자 그대로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들이다. 이들은 뿌리가 얕아서 사람들이 조금만 밟아도 살아나지 못한다. 그나마 토양과 수질 오염에 너무 약해서 전국적으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희귀종들이다.

수서곤충으로는 물자라를 비롯해 각종 잠자리 유충들이 관찰된다. 평지도 아닌 산꼭대기에서 물자라를 만난다는 것은 예사로운 기쁨이 아니다. 물자라는 통상 1백여개의 알을 얻기 위해 암컷은 1백여 차례나 짝짓기를 해야하는 괴로움을 겪는다. 생명은 추잡한 쾌락 끝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희생 끝에 탄생하는 것임을 탐방객들에게 무언의 설법을 해 주고 있다. 그 밖에 꼬마잠자리와 같은 산지성 곤충들과 표범장지뱀 같은 특정야생동물도 관찰된다.

숲 하나 없는 산꼭대기에 이토록 다양하고 튼실한 생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용천수와 이탄층 때문이다. 이탄층이 파괴되면 물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기능이 없어져 토양이 매말라버린다. 토양이 각박해지면 식물 생태계가 타격을 받고, 식물생태계의 변화는 곤충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으며, 곤충생태계의 파괴는 어류 · 조류 · 포유동물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 용연천 수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가 천성산 심장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서 이 생명의 늪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고속전철의 천성산 관통은 수맥변화와 지반침하를 일으켜 화엄늪지대를 파괴하며, 천성산 숲과 계곡을 급속하게 망가뜨릴 것이 뻔하다. 1994년 환경영향 평가 당시 화엄늪지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천성산 부분만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생명의 늪을 지켜야 할 것이다. 힘부로 저질러놓고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정부의 졸속정책이 천성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래저래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뿐하지만은 않다.



◇맑은 개울에만 서식하는 대벌레.



◇층층나무 가지에 희고 눈부신 꽃들이 눈처럼 탐스럽다.

천성산에 활엽수가 많아서 딱정벌레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수풍뎅이는 덩치가 큰데다 주위 환경이 파괴되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물의 하나이다.

천성산에는 멧토끼,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와 같은 포유류가 살고 있다. 너구리의 배설물은 등산로 길섶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어느날 원효의 스승인 대안 스님이 어미 잃은 너구리 새끼들을 데리고 와 마을 아낙네들의 젖을 시주 받아서 키웠다. 스님이 먼길을 떠나면서 그 일을 원효에게 맡겼다. 그런데, 지혜가 어둡고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너구리 새끼들을 죽이 말았다. 마침 돌아온 대안 스님이 죽은 너구리 새끼를 까마귀에게 주었다. 까마귀에게는 배를 부르게 하고, 너구리 새끼에게는 보시의 공덕을 쌓게 해주었다. 천성산의 너구리 전설은 죽은 것도 방생하는 생사의 불이법을 보여준다.

천성산의 정상인 비로봉에서 공룡능선을 타고 내려가면 성불암 계곡에 이른다. 성불폭포에 못미쳐 참나무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아름드리 굴참나무들이 선방 수좌들처럼 우뚝우뚝 서서 원시림을 방불케 하고 있다.

등산객들의 발걸음 끊어진 한갓진 기슭에는 각시붓꽃, 금난초, 까치수염, 광의다리, 골풀, 노루오줌, 더덕, 등칡, 솜붓꽃, 신비랑이, 실새풀, 우산나물, 족도리풀, 천남성, 참취, 하늘나리, 산수국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천성산 골짜기에는 소문나지 않아 더 아름다운 폭포들이 있다. 위로부터 연이어진 성불폭포-보살폭포-승가폭포를 따라 내려오다보면 층층나무, 노각나무 등이 눈에 들어온다. 장중한 생명의 교향악이다.

그나저나 고속전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내원사 스님들의 여름공부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011)266-8639